5년을 기다렸다…안산·안세영·우상혁 '금 사냥'

100일 앞둔 항저우 아시안게임

내년 파리하계올림픽 전초전
북한 국제종합대회 복귀 눈길
러시아·벨라루스 출전 여부 관심

61개 세부 종목 금메달 483개
한국 역대 최다 1180명 파견
e스포츠 첫 정식 종목 채택
체조 여서정·탁구 신유빈 활약 기대

전 세계 인구의 60%인 47억명이 모여 사는 아시아 대륙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하계 아시안게임이 오는 9월 23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하계 아시안게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에 시작해 10월 8일 폐막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시대에 접어든 뒤 아시아 대륙에서 처음으로 치르는 국제종합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중국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원래 2022년 9월에 열기로 한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년 연기한다고 지난해 7월 발표했다.

1951년 인도 뉴델리에서 출범해 1954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회 대회부터 4년 주기로 짝수 해에 열리는 하계 아시안게임이 연기돼 치러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지구촌을 덮친 2020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 정부,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전쟁이 아닌 이유로는 최초로 올림픽 개최를 1년 미뤄 치른 것처럼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같은 길을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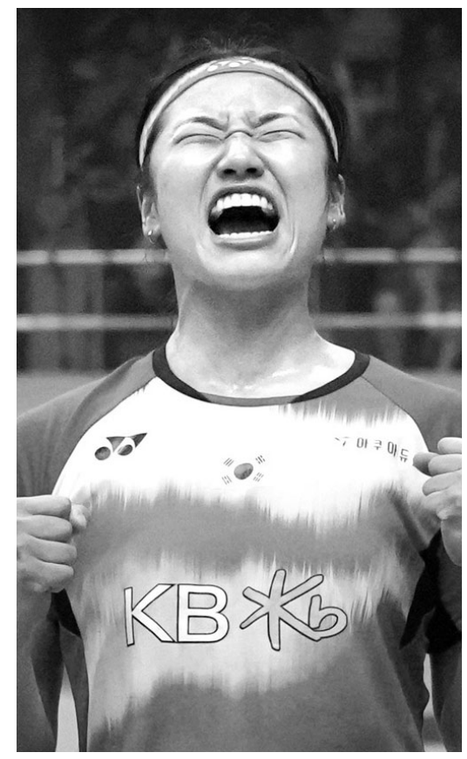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공식 명칭 앞에는 '2023'이 아닌 원래 개최 연도인 '2022'가 붙는다.

지구촌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2024 파리하계올림픽(2024년 7월 26일~8월 11일)을 10개월 앞두고 벌어지는 만큼 올해 아시안게임은 올림픽의 전초전 성격도 띤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하계 아시안게임 이래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북한의 국제종합대회 복귀 무대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남북 관계가 훈풍을 탔던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남북은 개폐회식 때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했고, 특히 여자농구·카누·조정 3개 종목에서 역사적인 남북단일팀을 구성했다. 남북단일팀 '코리아'는 카누 용선 여자 500m에서 국제종합대회 남북단일팀 최초의 금메달을 합작하는 등 카누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양궁 안산


배드민턴 안세영

높이뛰기 우상혁

또 여자 농구 단일팀은 은메달을 목에 걸고 역사에 새 이정표를 남겼다.

그러나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래 남북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북한은 자국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과 선수 보호를 이유로 내세워 2020 도쿄올림픽에 전격 불참했고, IOC는 북한이 '각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IOC 헌장을 위반했다며 2022년 말까지 NOC 자격을 정지했다.

IOC 징계가 작년 말로 자동 해제하면서 북한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래 5년 만에 국제 무대로 돌아오게 됐다.

유럽 대륙에 속한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초청' 형식으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지도 관심사다.

국제 스포츠 기구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 두 나라 선수의 국제 대회 참가를 제재해왔다.

그러다가 파리올림픽 대륙별·종목별 예선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올해 초, 제재를 완화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두 나라 선수의 파리올림픽 출전 길을 터줬다. 군대에 소속되지 않고 전쟁과 무관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 예선전에 출전할 수 있으며 자국의 국기와 국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40개 정식 종목의 61개 세부 종목에 걸린 금메달은 483개다. 대한민국 선수단 '팀 코리아'는 지난 8일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어 전 종목에 역대 최다인 1180명의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강세 종목인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처음 열린다. 파리올림픽의 정식 종목인 브레이킹도 대회를 후끈 달군다.

경기는 항저우를 비롯해 닝보, 원저우, 후저우, 샤오싱, 진화 등 저장성 6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한다.

우상혁(육상), 황선우(수영), 여서정(체조), 신유빈(탁구), 안세영(배드민턴), 안산(양궁) 등 도쿄올림픽을 거쳐 우리나라의 간판스타로 발돋움한 영건들이 세계와 다시 한번 맞붙는다.

1998년 방콕 대회에서 일본을 3위로 밀어내고 2위로 올라선 한국은 2002년 부산, 2006년 도하, 2010년 광저우, 2014년 인천 대회까지 2위를 유지하다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일본에 26개나 뒤진 금메달 49개에 머물러 3위로 내려앉았다. /연합뉴스

상승세 김효주 올 시즌 첫 승 정조준

올해 3개 대회 연속 '톱10'
LPGA 두번째 메이저 앞두고
15일 마이어 클래식 출전

김효주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를 앞두고 기량 점검과 함께 시즌 첫 승 도전에 나선다.

김효주는 오는 15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미시간주 벨몬트의 블라이더필즈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총상금 250만달러)에 출전한다.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을 일주일 앞두고 열리는 대회인 만큼 샷감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동시에 개인 통산 6번째 타이틀도 수확하겠다는 각오다.

작년 4월 롯데 챔피언십에서 5번째 우승을 거뒀던 김효주는 올해 들어 아직 우승이 없다.

1월 혼다 타일랜드(공동 10위), 3월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공동 8위)과 디오 임플란트 LA 오픈(공동 3위) 등 3개 대회 연속으로 톱10에 들며 시즌을 순조롭게 출발했으나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이후 김효주는 타이틀 방어에 나섰던 4월 롯데 챔피언십에서 공동 48위에 그치는 등 주춤하는 듯했으나 5월 재정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

이달 4일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롯데오픈에서는 장염 후유증을 딛고 공동 3위에 올랐고, 전날 LPGA 투어 숍라이트 클래식에선 올 시즌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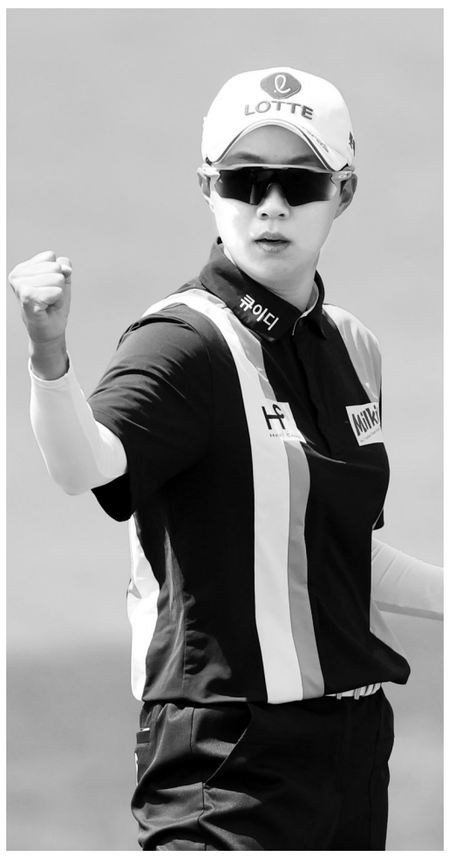
김효주도 자신의 샷과 퍼팅 감각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다음 주까지 좋은 느낌을 이어가다가 그 다음 주 메이저 대회에서 잘했으면 좋겠다"고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김효주는 LPGA 투어에 진출하기 전인 2014년에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을 제패한 바 있다.

이 밖에 톱 랭커로는 세계 3위 리디아 고(뉴질랜드), 5위 이민지(호주), 8위 렉시 톰프슨(미국), 10위 브룩 헨더슨(캐나다) 등이 우승 경쟁에 나선다.

세계 1위 고진영과 2위 넬리 코다(미국)는 이 대회를 건너뛰고 메이저 대회로 직행한다.

한국 선수 중에선 2018년 대회 우승자 유소연이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하며 전인지, 박성현, 유해란 등 총 18명이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롯데오픈 마지막 라운드 1번 홀에서 칩인버디 성공 후 포즈를 취하는 김효주. /연합뉴스

대세 박민지 내셔널 타이틀 탈환 도전

한국여자오픈 15일 개막
임희정은 2연패 겨냥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세'의 위력을 되찾은 박민지가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DB그룹 한국여자오픈(총상금 12억원) 우승 트로피 탈환에 나선다.

박민지는 오는 15일부터 나흘 동안 충북 음성군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리는 한국여자오픈에 출전한다.

2021년 한국여자오픈 챔피언 박민지는 지난해 아쉽게 내줬던 내셔널 타이틀을 2년 만에 되찾겠다는 각오다.

이번 시즌 들어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 애를 태웠지만 지난 11일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연장전에서 이글 퍼트 한방으로 대회 3연패의 위업을 이룬 박민지는 상승세가 뚜렷하다.

대회가 열리는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은 박민지의 텃밭이나 다름없다. 박민지는 이곳에서 열린 두차례 한국여자오픈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박민지는 이번에 우승하면 통산 우승 단독 3위(18승)로 올라서면서 공동 1위 구옥희와 신지애(이상 20승)에 바짝 따라붙을 수 있다. 또 김순미, 장하나, 김효주와 함께 메이저대회 다승 공동 3위(4승)로 올라설 수 있다.

메이저대회 최다승은 고우순이 세운 7승이며 5승의 신지애가 5승으로 2위다.

작년 우승자 임희정은 지난 18년 동안 아무도 이루지 못한 한국여자오픈 2연패에 도전한다.

한국여자오픈에서 2년 연속 우승은 2003년과 2004년 잇따라 정상에 오른 송보배가 마지막이었다.

올해 37회째를 맞은 한국여자오픈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이룬 선수는 고우순, 김미현, 강수연과 송보배 등 4명뿐이다.

대회조직위원회는 박민지와 임희정, 그리고 올해 첫 메이저대회 KLPGA 선수권대회 챔피언 이다연을 이른바 '방송조'로 묶었다. 1, 2라운드에서 동반 경기를 펼치는 박민지, 임희정, 이다연은 15일 오후 1시 10분 1번 홀에서 티오프한다.

돌풍의 주역 방신실은 메이저대회에서 생애 두 번째 우승을 바라보고 출사표를 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 김민솔, 임지유(이상 수성방통고), 유현조(천안중앙방통고3)도 출전해 언니들과 기량을 견준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범죄도시3
2관	플래시
3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인어공주,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4관	플래시
5관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6관	범죄도시3
9관	엘리멘탈
7관 씨네커플	범죄도시3
8관 씨네커플	범죄도시3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6월)
일시 : 2023-06-01(목) ~ 2023-06-30(금)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Dear Heart」
일시 : 2023-06-17(토)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